

연습실·리딩룸...지역예술인 누구라도 쓰세요

광산구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개관

- 문화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5억 확보
- 소촌아트팩토리 부지에 문 열어
- 스크린·프로젝터·음향시설 등 갖춰
- 오늘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오픈 행사



31일 정식개관하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의 대연습실 모습. /전문기자 eij6621@kwangju.co.kr

정식 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찾아간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는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소촌아트팩토리에 자리하고 있다. 공연연습센터가 들어선 소촌아트팩토리 부지는 10여 년 전까지 민방위 대피소로 쓰이다가 최근까지 비어있는 상태였다. 광산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예 예술 연수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뛰어들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고 이곳에 아르코공연연습센터를 마련했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는 지역 예술인들이 연극, 무용 등의 공연작품을 자유롭게 연습하고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약 100평 규모의 대연습실이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대연습실은 오케스트라, 발레, 연극 등 대규모의 작품 연습과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 쪽 벽면이 운동 거울로 꾸며진 연습실에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음향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도 구비돼 있다. 2층에 위치한 중연습실은 약 37평 규모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연 연습을 위해 개발 예정이다. 사용료는 연습실 규모에 따라 오전, 오후, 저녁시간으로 나누어 1~4만 원으로 책정했다. 예술인들의 열정을 응원하면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대본을 연습하거나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리딩룸과 세미나실은 연습실 대관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층에 위치한 카페는 비영리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대관 신청은 11월1일부터 가능하며 올해는 수시대관으로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2분기로 나누어서 정기대관을 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정기대관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를 통해 공간사용에 적합한 공연예술창작단체나 예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다. 광산구는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아르

코공연연습센터@광주 공동운영위원회'도 꾸렸다. 광산구는 31일 오후 6시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개관식을 갖고 공식운영에 돌입한다. 개관행사는 1부 공연파티, 2부 축하의 밤으로 진행된다. 소촌아트팩토리 야외에서는 소촌아트팩토리 협력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연다. 강혜경 소촌아트팩토리 팀장은 "10여 년도 넘게 낡은 건물로 남아있던 곳이 아르코공연연습장으로 새롭게 단장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960-3685. /전문기자 eij6621@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11월호



기차역·병원이 미술관으로 도시재생 문화에 해답 있다

전남 수목 프레비엔날레 출품작 소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국내외 많은 도시들의 화두다. 산업구조 변화와 급격한 도시확장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1월호는 특집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를 통해 기차역과 병원이 미술관으로, 도축장과 쌀 창고가 문화예술 센터로 바뀐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본다.

예향 전남 곳곳에는 묵향(墨香)이 그윽하다. '2017 전남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목의 여명-빛은 동방으로부터'를 주제로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세계 11개국 232명의 수목 작가들의 다채로운 수목과 작품을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올해로 마임 인생 45년을 맞은 '마임 배우' 유진규씨다. 1972년 '첫 여행'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몸짓과 표정만으로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시대상황 속에서 겪는 트라우마를 무대에서 마임으로 선보이고 있는 유씨를 만나 마임과 함께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본다.

깊어가는 가을, 예향과 함께 떠나는 남도여행도 기대된다. 2018년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신(新) 남도택리지'가 시작된다. 첫 번째 여정은 '건강의 섬'이자 '대한민국 해양 수도'를 자랑하는 완도다. '문향(文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가는 시리즈도 시작된다. 작가와 시인의 창작촌이 있던 문학관을 탐방하고 그들의 생애와 문학, 콘텐츠와 연계된 예술 현장을 담아낼 예정이다.

'책방별곡' 다섯 번째 탐방지는 시(詩)들이 사는 책방 '위트 앤 시니컬'이다. 남다른 안목과 마케팅으로 국내 최초 시집 전문서점을 열고 한 달 평균 1000여 권의 시집을 판매하고 있는 책방지기 유희경씨의 색다른 '시의 숲'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 밖에도 '드뎡 50주년' 패션쇼를 연 디자이너 문광자씨와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 주역인 KIA 타이거즈 로저 버나디나와의 인터뷰가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행 칼럼니스트 노중훈의 '꿈의 여행' 발간반도에 만발한 크로아티아의 풍경, 대중문화 평론가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연예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도 읽을거리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소나무' 20주년...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전

11월 6일까지
광주예총 전시실



▶류재웅 작 '산수화'

한국, 일본, 중국 작가 40여명이 함께하는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전 (Croisement de l'Asie)'이 오는 11월 6일까지 광주예총 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트그룹 소나무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마련한 행사다. 아트그룹 소나무는 1996년 발간인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미술단체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천년송'을 주제로 기념전을 열기도 했던 아트그룹 소나무는 그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이번에 일본과 중국의 주목받는 차세대 작가를 초대했다. 이번 전시는 일본 핫카이도 문화재단과 중국의 전시 기획 그룹 '야크'가 함께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소나무회 창립 멤버인 류재

웅을 비롯해 조규철, 위진수, 김영일, 정명돈, 이선복, 정경래, 안진성, 최대준, 장용훈, 홍원철, 조선아, 한동훈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1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오쿠노 유리, 카기자키 히로시, 니시다 요지, 마리코 이시다, 마사요시 하야마 등이다. 중국에서는 칸민, 쉐 진동 작가 등 6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며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통문화관에서 공연도 관람한다. 또 백운동 서원, 청자박물관, 운림산방 등 남도 지역 곳곳도 탐방할 계획이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묵으로 또 다른 시작...김대원 개인전

1~7일 서울 G&J 광주·전남 갤러리

'수묵으로의 귀환.' 한국화가 김대원 조선대 미대 명예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안료와 오브제를 활용한 작업들을 해왔다. 때로는 아크릴 등을 활용한 화려한 색감의 작품들을 내놓기도 한 김 작가는 '다양성'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로서의 역할에 충실,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다. 4년 전 퇴임하며 오롯이 자신만의 작품에 몰입하게 된 김 작가는 언제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묵'의 세계로 다시 온전히 들어갔다. 지난 2014년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정리한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 이후 3년만에 여는 개인전은 '수묵으로 또 다른 시작'을 꿈꾸는 김 작가의 최근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11월 1일~7일 서울 G&J 광주·전남 갤러리. 이번 전시의 주제는 'Vestige', 흔적이다. 수묵의 매력에 화선지 위에 번지는 자유분방함이라고 한다면 수묵으로 회귀한 그의 전시와 맞춤형 제목이다. "학교에 있으면서 양화적 재료로 새로운 조형감을 시도하는 작업도 흥미로웠습니다. 그 쪽으로 작업하고 나니 수묵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흔적'은 지나온 시간의 궤적과도 같습니다. 인생 속에서 느꼈던 감동, 감각, 생각들을 아우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고향과도 같은 수묵으로 표현해 낸 작품들입니다." 수묵이 '묵과 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종이 위로 스며드는,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없는 조형미가 인상적이다. 대법한 붓질로 풀어낸 활달한 기운과 옆에 번져가는 배경들이 어우러져 흥미로운 작품들로 완성됐다. 여기에 화폭을 장악하는 다양한 색감의 기운들이 함께 화면을 장악한다. 문의 02-725-00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흔적'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